

글말특강 감상문

20181156 채윤호

우리에게 글과 말은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러브 레터,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면접 자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등 우리는 모두 말과 글을 통해 소통합니다. 하지만 글과 말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만큼 어렵고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글과 말을 더 쉽게 해주는 특강인 글말특강에 대한 소감문을 적어보려 합니다.

이번 글말 특강에서 호감을 얻는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호감을 잘 얻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형 연합동아리에서 2년간 임원 생활을 하며 다수의 모임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기에 남들보다 '말하기'에 대한 걱정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말 특강을 들으며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특강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나는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나?'와 같이 지금까지 호감을 얻었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떠올려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듣기 꺼끄러운 내용을 전달하거나, 신중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호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내용은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주변에서는 저를 보고 공감 능력 제로, 이하 '공능제'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곤경이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슬픔에 빠졌을 때 앉아 울고만 있으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는 것이 그 상황을 벗어날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지 상대방에게 위로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자꾸 최선의 선택을 찾아주려 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위로를 얻고 싶은데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도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하려고 진심이 아닌 감정적인 말을 해주면 왠지 모르게 상대방을 속이는 것 같고 가식을 떠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친구들과과는 '야, 괜찮아~ 잘할거야~' 하고 넘기기에 문제가 없지만 정말 큰 문제는 애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문제에 같이 아파하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해주길 원하는건 당연한 심리이건만 저는 그게 잘 안됐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글말 특강을 들으면서 공감하는 법

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기분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꾸 상대방의 상황에 공감하지 않아 자꾸 판단, 해결,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르기에 그저 물어본다면, 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더 깊게 공감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기분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글말 특강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과 평소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이후,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특강의 지혜를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